

홀트소식

WINTER 2026 — VOL.219



홀트소식

www.holt.or.kr



겨울이야기

한부모가족이 겪는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맘이즈와우(MOM is WOW)'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채연 홍보대사는 이번 캠페인에 함께해 메시지 확산에 힘을 보태며 따뜻한 공감과 선한 영향력을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34~35쪽)



08



12



14



18



40

Contents

신년특집

- 04 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신뢰로 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07 ② 미래 복지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 홀트사회복지연구원 개소
- 08 ③ 70년을 넘어 통합돌봄 시대 민간 복지의 길을 묻다

아동·청소년복지

- 10 ① 자립준비청년 풋살구단 런던 FS 2기, 공 하나에 담긴 두 번째 도전
- 12 ② 함께 만든 시간,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한부모가족복지

- 14 ① 마유아, 우리 오늘 하루는 잠시 쉬어갈까?
- 16 ②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 18 ① 반세기 특수교육의 길,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심다
- 22 ② 느리지만 끝까지 한 걸음씩

지역사회복지

- 24 ① 사랑을 행동으로 지역과 이웃을 품어온 우리 동네 복지관 40년
- 27 ② 세대공(共)감으로 하나 되는 마을, 본리이음페스티벌

국제개발협력

- 30 ① 게르촌 아이들에게 희망을 밝힌 10년의 발걸음
- 32 ② '희망 Dream 자립센터'가 여는 몽골 청소년의 미래

캠페인

- 34 축복이여야 할 순간이 생존의 시간이 되어버린 엄마들

나눔스토리

- 36 ① 작은 시작이 만든 큰 변화, '츠카타니코리아'의 따뜻한 후원 이야기
- 37 ② 새움학교 '막무가내 대장부'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나눔의 여정
- 38 ③ 한부모 자립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 HD현대%나눔재단 GRC 플리마켓
- 40 ④ 소중한 기념일을 나누는 작은 마음이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 42 ⑤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힘으로 나눔의 가치를 만들다
- 44 ⑥ 사랑을 행동으로, 나눔을 일상으로

- 46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219호(계간) 발행일 2026년 1월 26일 발행인 김정오 편집인 신미숙
발행처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홈페이지 www.holt.or.kr
후원문의 02-331-7073~6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좋은 사연·좋은 제언 pr@holt.or.kr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본부 02-331-7073-6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이사 정용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스티브 모리슨(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032-277-1391	홀트미추홀	032-548-1601
감사 장재훈(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산하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허브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광주클로버	062-361-59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인천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32-713-4145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53-756-0184 대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42-586-1983		국제개발협력 홀트 해외사업장 02-331-7040 (몽골,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후원자님,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좋은 소식지' 대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수신'으로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자원을 아끼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수신 전환 방법 :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연락 주세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신뢰로 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에게 듣는 ‘홀트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내일’

2026년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창립 7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신년호에서는 40여 년간 홀트와 함께해온 신미숙 회장을 모시고 홀트의 방향성과 비전, 그리고 향후 복지환경 속에서 홀트의 역할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과 가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현장에서 마주한 이웃들의 삶의 무게를 존중해 온 ‘홀트의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 홍보팀장 오진희
사진 홍보팀 남지인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한 문장에 이끌리다

신미숙 회장님은 어느 날 우연히 받아본 <홀트소식>에서 ‘Love in Action(사랑을 행동으로)’이라는 문장이 마음에 와닿아, 이를 계기로 홀트아동복지회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할 가치처럼 느껴졌어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대상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사한 이후, 복지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후원사업 업무에 이르기까지 홀트의 다양한 실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특히, 2005년에 본사 후원팀에서 근무한 시기는 홀트의 사업과 후원이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깊이 체감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후원의 손길이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2006년 7월 현대홈쇼핑의 1억 원 후원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선도적인 사업이었고, 이는 기업후원의 중요성과 함께 홀트가 현장의 필요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홀트의 미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힘

“홀트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 제 삶의 자람이자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여정이었습니다.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힘에 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언제나 기관이 지켜온 미션에 있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대상자뿐 아니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졌고, 그 마음은 다시 가족과 이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홀트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 제 인생의 자람입니다.”

이 말에는 개인의 경력을 넘어, 홀트아동복지회가 지켜온 가치와 방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입사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여정은 ‘사람’과 ‘가정’으로 귀결됩니다.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 있는 장면은 한부모가족과 장애 아동 부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홀트의 지원 속에서 자립에 이른 미혼엄마,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웃음을 되찾은 한 발달장애인 어머니와의 만남은 홀트의 역할이 어디에 닿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홀트의 일은 대상자 개인을 넘어 그 가족 전체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 느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홀트의 방향과 기준

신미숙 회장은 홀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대상자의 삶에 집중해 온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꼽습니다. “시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의 형태는 달라져 왔지만,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아동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일만큼은 단 한 번도 홀트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국가의 제도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영역이

기업후원의 중요성과
한부모를 위한
양육 지원사업 등은
모두 현장의 필요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홀트의 미래는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동과 가족의 삶을
중심에 두고,
돌봄과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존재했습니다. 홀트는 그 빈자리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동, 한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닿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랜 시간 변함없이 지켜온 홀트 사업의 방향이자 기준입니다”라고 밝힙니다.

통합돌봄과 생애주기 지원으로 확장되는 홀트의 미래

앞으로 홀트는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과 ‘생애 전반을 잇는 통합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한부모가족의 자립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까지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것이 지금 홀트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각 영역에서 쌓아온 경험을 하나로 연결해 보다 연속적인 지원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홀트의 미래는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동과 가족의 삶을 중심에 두고, 도움의 경험이 다시 사회를 돌보는 책임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관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때, 홀트는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함께해 온 직원들과 후원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삶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사람을 섬기는 기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신뢰로 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따뜻한 평안과 희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래 복지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 홀트사회복지연구소 개소

홀트아동복지회 사업의 전문성과 비전 제시, 현장에서 길을 찾고 연구로 변화를 만든다

현장에서 시작하는 연구

홀트사회복지연구소는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체계를 구축해,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국제개발협력 등 주요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현장의 실천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연구 성과는 보고서와 간행물, 포럼 자료집 등으로 발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로 더 나은 결정을 돕습니다

연구소는 기관의 다양한 사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자료를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정리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향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평가와 서비스 개선, 참여자 분석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기관의 전략 수립과 사업 운영 전반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함께 연구하고, 지식을 나눕니다

연구소는 대학, 사회복지기관, 정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며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과 연구 동향·정책 자료 공유, R&D 브리핑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으로서 공공과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홀트사회복지연구소

홀트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70년의 발자취를 토대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적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사업 개선방안 연구와 데이터 기반 사업 설계, 연구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관의 핵심 지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70년 동안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며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기관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구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7월 홀트사회복지연구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연구소는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내부 사업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협력하여 연구·데이터·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글 홀트사회복지연구소 정지수



70년을 넘어 통합돌봄 시대 민간 복지의 길을 묻다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



포럼에 참석한 기초강연자 및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2025년 12월 4일, 홀트사회복지연구소 주최로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 '통합돌봄 시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대'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민간 사회복지기관으로서 홀트아동복지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계·현장·공공 분야 전문가와 민간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공유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글 홀트사회복지연구소 정지수

통합돌봄에서 민간의 역할을 다시 보다

포럼에서는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민간기관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주체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관리, 위기가정 발굴, 맞춤형 서비스 조정 등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유연성은 통합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정책을 함께 실행하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협력으로 완성되는 통합돌봄 체계

발표 세션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구조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돌봄체계를 총괄하는 가운데, 민간기관은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이 사람들의 일상 곳곳에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사례관리 기준 정비, 인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민간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말하는 꼭 필요한 변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공공 분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공공-민간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아동·장애인·한부모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 등이 주요 논의로 다뤄졌습니다. 토론자들은 통합돌봄은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통합돌봄 시대를 준비하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오랜 기간의 실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의



지정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는 모습

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을 보유한 기관이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아동 돌봄과 주거, 가족 단위 지원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홀트의 접근은 향후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시대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장애인 영역에서는 단기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년기까지 연계되는 돌봄 로드맵을 마련하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천, 사례와 정보의 지속적인 공유, 이를 체계화하고 확산하는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70년을 넘어, 다음 100년을 향해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은 홀트아동복지회가 과거의 성과를 돌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민간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제도 변화를 앞두고, 민간기관이 지자체 및 공공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현장 전문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포럼을 통해 제시된 대상별 맞춤 돌봄, 민간 간 협력 등의 과제는 앞으로 홀트아동복지회가 준비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연구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과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시대에 걸맞은 민간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런런 FS 창단식 단체사진

자립준비청년 풋살구단 런런 FS 2기, 공 하나에 담긴 두 번째 도전

풋살로 함께 나아가는 자립의 길, 창단식과 합숙훈련 이야기

풋살화 끈을 조여 매고 공을 차는 발끝에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2025년 11월 8일, 고양시 덕양구 어썬타운 연수원에서 자립준비청년 풋살구단인 런런 FS(Run Learn Futsal) 2기가 두 번째 출발선에 섰습니다. 풋살 훈련과 함께 삶을 향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두 번째 여정이 다시 시작된 날, 그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글·사진 아동복지팀 이재영



1박 2일 합숙훈련 활동

더욱 성숙해진 우리, 두 번째 출발

런런 FS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직업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관 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런런 투게더'와 '런런 챌린지'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풋살구단입니다. 스포츠를 매개 로 몸과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자립 이후의 삶을 주체적으 로 그려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2기에는 서울·수 도권과 경남 지역에서 모인 총 28명의 단원이 선발되었고, 특히 1기에서 주장으로 활약했던 임지훈 청년이 이번에는 코치로 새롭게 합류해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단식은 홀트아동복지회 손윤실 나눔사업본부장의 환영 사와 후원사인 KB손해보험 최선영 유닛장의 격려사로 따 뜻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창단식 이상으로, 자립 준비청년들이 자립 이후에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꾸 려갈 수 있도록 후원자들과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 감독·코치 임명, 소감 발표, 단원 소개, 단 체사진 촬영이 차례로 진행되며 단원들 각자의 다짐과 각 오가 하나의 팀 목표로 모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우리, 꿈을 향해

창단식 후에 이어진 1박 2일 합숙훈련은 신민규 총괄감독 의 풋살 클래스를 시작으로 단원들이 처음 서로 얼굴을 마 주하고 각자의 포지션과 팀 목표를 설정하며 본격적인 팀 워크를 다졌습니다. 연습 경기뿐만 아니라 포지션 배치, 전 략 논의를 함께하는 동안 청년들은 조금씩 '우리 팀'을 만들 어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2기에는 스포츠 관련 진로를 꿈 꾸는 청년들과 풋살 경험이 있는 단원도 다수 참여해 훈련 의 몰입도 또한 높았습니다.

풋살 클래스를 위해 국내 풋살 지도자 양성 분야의 권위자 김태열 감독을 초청해 특별 훈련을 진행했고, 야간에는 진 로를 주제로 한 멘토링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멘토링 시 간에는 김태열 감독과 신민규 감독이 함께하며 단원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목표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 었습니다. 특히 자립 선배와의 만남은 정보와 경험을 나누 는 소중한 교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롤 모델과의 만남,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번 합숙훈련의 하이라이트는 풋살 롤 모델들과의 직접적 인 만남이었습니다. 김태열 감독을 비롯해, 국가대표 선수 신중훈·강주광, 유튜브 '풋살 엄살라' 등 9명의 프로 선수가 함께해 훈련과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단원들은 짧은 시 간이었지만 눈에 띄는 기량 향상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꿈 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경험을 통해 삶의 방향과 동기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뜻깊 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한 런런 FS 2기는 이번 창단과 합 숙훈련을 시작으로 지역 연합 경기, 아마추어 대회 출전, 자 립준비청년 초청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욱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신체적·정 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 지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하겠습니다.





위드유 참여자 단체사진

함께 만든 시간, 함께 성장하는 우리

위드유 커뮤니티 3기,
우리가 직접 만든 첫 글램핑 프로젝트

처음 만난 얼굴, 오래 알고 지낸 얼굴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가평 동화힐링캠프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위드유 커뮤니티(이하 '위드유') 3기 글램핑 프로젝트는 '쉬는 시간'을 넘어 처음으로 다 함께 만나는 기획이자 서로의 마음을 열고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글램핑하기 딱 좋은 화창한 가을날, 기획부터 운영까지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만들어낸 특별한 1박 2일의 추억 한 페이지를 소개합니다.

글 아동복지팀 박지연



마음을 여는 첫걸음

이번 글램핑은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위드유' 1기부터 3기까지의 참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한 친목 행사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최한 첫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첫 프로그램은 심리상담전문가 김가희 강사와 함께한 아이스브레이킹과 마음챙김 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의 기분', '이번 캠핑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갔고, 이 시간을 통해 하루를 함께 보낼 룸메이트와 팀도 정해졌습니다. 어색함은 웃음으로, 긴장은 공감으로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강도현 MC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이번 글램핑에는 홀트아동복지회 명예멘토 강도현 MC도 함께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준비하고 기획한 '오징어 게임' 콘셉트의 레크리에이션을 재미있고 활기차게 이끌며 현장은 금세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팀별로 협력하고 몰입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쌓이고, 서로 더욱 더 친근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위드유란?' 진심이 오간 이야기들

이후 저녁 식사 전에는 '나에게 위드유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이라는 질문을 주제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드유'는 '활력', '힐링', '도전', '즐거움', '나의 도전을 지지해 주는 친구이자 어른이다' 등. 다양한 답변 속에는 '위드유'가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위드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램핑의 꽃, 바비큐 타임과 인간 율놀이

본격적인 저녁 시간에는 야외 식당에 다 함께 모여 바비큐를 마음껏 즐기며 저녁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각자의 레시피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며 웃음과 따뜻한 음식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글램핑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3기 프로그램 진행팀이 직접 기획·제작한 '인간 율놀이'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직접 말이 되어 움직이고 해당 칸마다 숨어 있는 특별 게임까지, 위드유만의 독창적인 방식과 규칙이 더해지며 현장은 열띤 응원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레크리에이션을 함께한 전문가 강도현 MC도 "이런 율놀이는 처음 본다", "웃판을 가져가고 싶다"라며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창의성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접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획한 활동에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 속에서 자립준비청년 스스로도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의미 있는 자립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운까지 챙긴 흥겨운 마무리

마지막 프로그램 경품 추첨은 하루 동안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해 얻은 추첨권으로 진행됐으며, 이긴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3기 참여자들이 직접 선정한 경품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생활용품들로, 모두가 양손 가득 선물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무리였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에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야식과 보드게임을 즐기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함께였기에 더 특별했던 가을밤

이번 글램핑은 위드유 커뮤니티가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 완성한 첫 프로젝트로, 단순한 추억을 넘어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과 공감, 도전과 성취가 어우러진 잊지 못할 가을밤이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내일이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지도록 변함없는 마음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인간 율놀이 활동



마음아, 우리 오늘 하루는 잠시 쉬어갈까?

한부모가족 심리지원사업 '네 마음을 보여줘' 마음챙김 워크숍 현장 스케치



홀트아동복지회는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자녀의 심리·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각종 치료와 개별·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며,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돕는 심리지원사업 '네 마음을 보여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8일에는 한부모가족들이 참여하는 '네 마음을 보여줘' 마음챙김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가족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던 그 현장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글 한부모가족지원팀 윤정아



한부모 가정 심리상담 지원사업

네 마음을 보여줘 마음챙김 워크숍

일시 2025.11.08(토) 장소 홀트아동복지회 / 롯데월드 어드벤처

아이와 동서 홀트아동복지회

프로그램 참가 한부모가족 단체사진



마음 안정 활동 글리터 만들기



마음챙김 프로그램 활동

서로를 알아가는 따뜻한 시간, 마음챙김, 한 스푼

이번 워크숍은 오전에는 차분히 마음을 돌보는 기회를, 오후에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외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한국마음챙김연구소 박은 강사와 함께하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한 팀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 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며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글리터(반짝이)를 활용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으로, '내가 외계인이라면?'이라는 상상을 통해 처음 만나는 세상을 바라보듯 쨍리와 간식을 천천히 느껴보는 체험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는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고, 포스트잇에 서로의 장점을 적어 붙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짧지만 알차게 채워진 오전 시간 동안, 부모와 아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연결되는 소중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마음이 웃는 문화체험, 놀이공원에서 반짝이는 아이들

오후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롯데월드 나들이가 이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설렘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의 기대처럼,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웃음소리와 즐거움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나는 놀이기구와 다채로운 볼거리를 함께 즐기며 서로의 즐거움에 공감하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고, 아이들의 반짝이는 호기심과 상상력,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따뜻한 미소가 어우러져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해야 할 일'보다 '내 마음'을 먼저 챙기는 날이었습니다. 잠시 멈춰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소감

각가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집에만 머무르던 저와 매번 그런 저에게 심심하다고 말하던 아이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아이와 오전 시간에 차분히 앉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제가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돌보고 관계를 회복하는 심리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며 늘 가까이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삶을 다시 이어준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후기



위기의 순간, 한 사람의 삶은 물론 한 '가족'의 존립이 흔들립니다.

출산과 양육, 생계와 주거, 의료와 심리까지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놓인 위기미혼모자 가정에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도움이 아닌,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24년부터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긴급한 보호와 회복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미혼모자 가정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켜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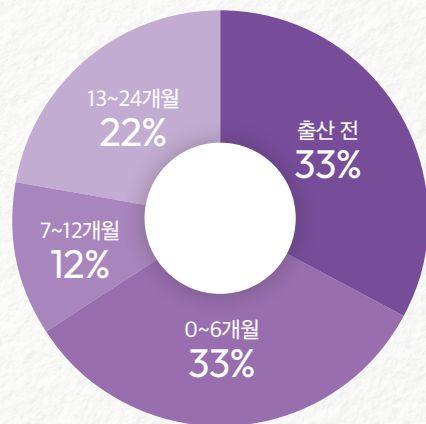
글 한부모가족지원팀 유호정

비로소 지켜낸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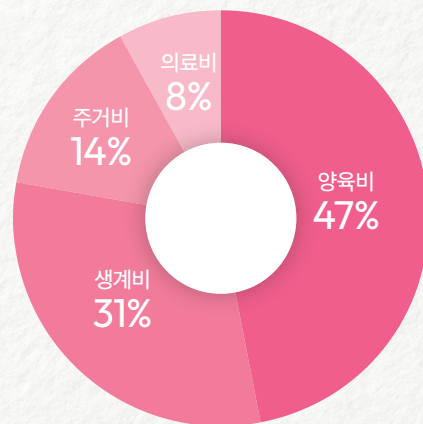
2025년 한 해 동안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위기미혼모자 60가정이 위기의 시간을 견뎌내고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회복을 지원하여 20명의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위기에 놓인 미혼모자 가정의 생계·양육·주거·의료·심리상담 분야의 맞춤형 지원으로 총 40가정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간, 포기 외로움이 반복되던 순간 속에서도 위기미혼모자 가정은 지원을 통해 가족을 지켜냈고, 마침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만나 삶이 변화된 두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25년 자녀 연령별 지원가구 현황



2025년 항목별 지원 현황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물품들

내일을 꿈꾸는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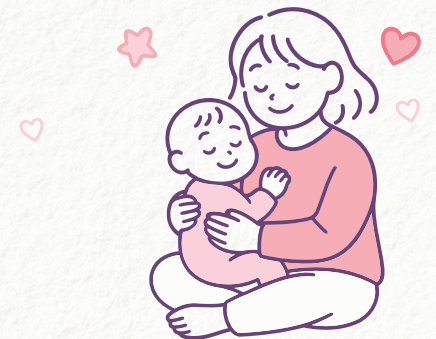
청소년한부모인 지연 씨(가명)는 막 첫돌이 지난 아이,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산 당시 난소 양쪽에 악성 혹이 발견되어 한쪽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아이는 심장병과 신경섬유종 소견으로 정밀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세 식구가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고, 당장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긴급지원을 통해 아이의 대학병원 정밀검사비와 가장 시급한 생계, 양육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정밀검사와 관찰 끝에 다행히 심장병은 회복되었고 신경섬유종도 초기 단계임을 진단받아 조금이나마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지연 씨는 "앞만 보며 버텨야 했던 하루에서,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지원 덕분에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여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현희 씨(가명)는 초등학교 첫째 아이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조손가정에서 자란 현희 씨는 스무 살 무렵, 하나뿐인 가족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생계를 위해 매일 새벽 의류도매시장에서 일하던 중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수급비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대출금과 월세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한

달에 20만원 남짓. 쌀 한 톨도 없는 집에서 제대로 된 출산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앞친 데 뒷친 격으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미납된 임대료와 3개월 이상 밀린 도시가스 요금은 가정의 보금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지원을 통해 현희 씨 가정은 미납 임대료와 공공요금의 부담을 덜었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식사를 위한 식자재와 생필품,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도 함께 지원되며 가족들은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따뜻해진 집에서 현희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누구보다 단단해진 현희 씨는 자립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며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위기의 순간에도 가족이 체되지 않도록,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에도 한부모가족의 회복과 자립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반세기 특수교육의 길,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심다

홀트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교육·예술·스포츠로 펼쳐진 축제의 장

개교 50주년을 맞은 홀트학교가 교육·예술·스포츠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홀트학교는 장애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의 길을 묵묵히 걸어 오며, 학생들의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DREAM 마중물 교육'의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1962년 '완다학교'라는 이름으로 몇 개 교실에서 시작된 장애아동 교육은 1975년 정식 개교를 거쳐 이제 유·초·중·고·전공과 전 과정을 망라하는 혁신적 특수교육 체계를 갖추었고,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다양한 문화·예술·진로 프로그램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지난 5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희망찬 미래 특수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기념행사의 주요 장면을 소개합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 사진 홀트학교 미래융합부장 허남석



인사말 중인 홀트학교 김정민 교장

어깨동무 음악회 : 50년의 추억이 노래가 되다
제12회를 맞은 '어깨동무 음악회'는 개교 50주년의 상징적 프로그램으로, 2025년 10월 29일, 홀트학교 운동장 특설 무대에서 뜨거운 호응 속에 열렸습니다. 홀트학교와 문춘초, 한국경진학교, 일산은행초 등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낸 감동의 무대는 예그리나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국악, 앙클롱오르프, 모듬북, 뮤지컬, 합창 등 다양한 장르가 한데 어우러졌으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며 협연하는 모습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뷰티플마인드 연주팀의 클라리넷 앙상블 공연 모습



국악&예그리나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제12회 어깨동무 음악회 참가자 단체사진



홀트학교 50주년 기념 엠블럼

이번 음악회는 장애학생 음악교육 연구회 회원과 오케스트라 강사들이 중심이 되어 수개월간 준비되었고,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BGF복지재단이 후원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특히 홀트학교 50년의 역사와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가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의 사회성과 자존감, 협동심을 키우는 어깨동무 음악회는 장애학생 예술교육의 가능성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전하며, 통합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제1회 메이크월배 특수학교 씨름대회

제1회 메이크월배 특수학교 씨름대회 : 스포츠로 확장되는 도전과 성장의 장

10월 31일에는 제1회 '메이크월배 특수학교 씨름대회'가 열렸습니다. 홀트학교를 비롯해 한국경진학교, 명현학교, 새얼학교 씨름대표선수단이 함께 출전한 이번 대회는 '특수학교 스포츠 활성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홀트학교는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남자 3체급, 여자 2체급 총 5개 체급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씨름대회는 학생들이 평소 갈고닦은 실력과 정신력을 발휘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메이크월과 오빠네옛날떡볶이 등 지역사회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된 기념 티셔츠, 씨름장 설치, 대회 수상품과 점심식사 등은 학생들의 참여 의욕을 더욱 높였으며, 풍물패의 오프닝 공연과 전문적인 경기 해설이 더해져 진정한 스포츠 축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씨름은 균형감각, 근력, 협동심, 도전 정신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이번 대회는 특수학교 간 교류를 촉진하는 새로운 장이 되었고, 장애학생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홀트학교 사진전 : 함께 걸어온 길, 함께 이어갈 마음

지난 반세기의 홀트학교 특수교육 활동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홀트학교 사진전'이 마련되었습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이번 사진전은 학생·교직원·학부모는 물론 졸업생과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홀트가 족에게 학교 곳곳에 쌓인 역사와 추억을 재구성해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실에 임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이동식 전시대와 가벽을 설치하여 작은 갤러리처럼 꾸며진 사진전에는 학생들의 수업 장면, 운동회, 교외활동, 예술활동, 졸업사진 등 다양한 세대의 기록이 함께 전시되어 '홀트 교육 50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펼쳐놓았습니다.

특히 사진전을 찾은 교직원과 학부모, 졸업생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은 학교의 따뜻함과 교육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며 깊은 공감을 나눴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교육의 뿌리가 얼마나 오래되고 소중한지 처음 알게 되었다"라며 감동을 전했고, 졸업생들도 전시된 사진 속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학교의 성장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사진은 행사 이후에도 다목적실과 계단 벽면에 상시 전시되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학교의 50년 역사를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홀트학교 사진전



홀트예술마당 학부모 특별공연 장면

홀트학교는 장애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통합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특수교육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개교 50주년 감사예배 중 교사들의 공연 장면



홀트예술마당 모듬북 공연 모습

개교 50주년 기념예배 & 홀트예술마당 : 배움의 결실을 나누는 '연결의 시간'

12월 10일에는 개교 50주년 기념예배와 홀트예술마당이 다목적실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 이현주 홀트일산복지타운원장, 이창신 홀트일산요양원장, 김석영 홀트학교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예배는 개교 5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교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예술마당에서는 유치과정부터 전공과까지 전교생이 참여하여 합창, 악기연주, 합주, 율동, 댄스, 난타, 연극 등 각 학급이 1년 동안 준비한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학부모는 현장 관람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자녀들의 무대를 함께했으며, 특히 학부모 특별공연에서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곡으로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따뜻한 감동을 더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무대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얻는 학생들의 모습은 특수교육이 만드는 긍정적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교사와 예술강사, 학부모가 함께 준비해 공동체적 가치를 더욱 빛냈습니다.

50년의 교육은 계속된다 :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

홀트학교의 50주년 기념행사들은 과거를 기념하는데 머물지 않고 학생들의 열정과 지역사회의 연대, 교사들의 헌신 등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었습니다. 홀트학교 50년의 세월은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없애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여정이었으며, 학생과 교사,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긴 협력의 발자국은 오늘의 홀트학교가 존재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학교는 장애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통합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특수교육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느리지만 끝까지



한 걸음씩



장애인일자리 최우수상 수상자

이현수 씨가 들려주는 성장과 도전 이야기

매일 오후 1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녹음실에 조용히 불이 켜집니다. 이곳에는 “나이도, 장애도 문제없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배움과 도전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사람, 이현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5년 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로, 60세의 나이에 팟캐스트 편집자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건네고 있습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 사진 홍보팀 남지인

예상치 못한 큰 상, 그리고 기부로 이어진 감사의 마음

이현수 씨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상 소감을 전하며, 주저 없이 상금 전액을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후원은 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으면서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바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감사한데, 선생님들께서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해볼 수 있을까?’에서 시작된 도전

이현수 씨가 공모전에 응모하게 된 계기는 장애인일자리 담당 선생님의 “글을 써보면 좋겠다”라는 권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지만 꾸준히 일해 온 시간과 변화의 경험을 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 자리를 찾는 장애인분들께 말하고 싶었어요. 작은 자리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자기 자리를 찾게 된다고요. 저 역시 그렇게 조금씩 변해왔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팟캐스트 DJ에서 편집자로... 새로운 일의 시작

이현수 씨와 팟캐스트의 인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송실 특화사업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소통공간 ‘고양라디오’에서 DJ로 활동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배웠고, 지난해부터는 음성 편집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

습니다. 이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올해부터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콘텐츠 제작 분야에 정식 참여하게 됐습니다. “팟캐스트로 활동하면서 녹음·편집·배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했어요. 그 덕분에 일자리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녹음실에서 시작됩니다”

이현수 씨의 하루 업무는 오후 1시에 복지관 녹음실에서 시작됩니다. 녹음실 불을 켜고 장비를 점검한 뒤 담당 선생님이 녹음한 파일을 전달받아 음성 편집을 하고 ‘캔바(Canva)’로 섬네일을 제작하고 완성된 MP3 파일을 MP4 영상으로 변환해 팟캐스트 담당 선생님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면 하루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단순한 작업 같지만, 처음에는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음성 편집과 섬네일 작업이 익숙하지 않아 오랜 시간 컴퓨터와 씨름해야 했고, 용량이 큰 MP4 동영상 파일을 담당 선생님께 전송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몇 개월 뒤에는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고양라디오 스튜디오에서 DJ 활동 중인 이현수 씨



장애인일자리사업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모습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힘이 된다는 걸 새롭게 느꼈어요. 제가 만든 방송이 업로드되고 지인들이 ‘잘 들었다’라고 말해줄 때마다 정말 보람이 큼니다.”

그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과 동료들의 응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김혜수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장은 “녹음 중 장비 문제로 방송이 지연될 상황이 있었지만, 이현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즉석에서 대본을 재구성하고 상황을 정리해 방송을 무사히 마쳤다”라며 “늘 누구보다 일찍 방송실에 도착해 장비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방송에 임하는 책임감과 진심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꾸준히 하면 힘이 됩니다”... 스스로 일군 변화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규칙적인 생활과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힘이 된다는 걸 새롭게 느꼈어요. 제가 만든 방송이 업로드되고 지인들이 ‘잘 들었다’라고 말해줄 때마다 정말 보람이 큼니다.” 이현수 씨는 앞으로 동영상 편집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음성 편집을 하다 보니 영상 편집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와 함께하는 분들과 더 많은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저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보려는 마음이 가장 큰 밑거름입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응원과 작은 기회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끝까지 한 걸음씩 내디디며 성장해 온 그의 여정은 장애인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전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홀트대구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40주년 기념
즐기고, 배우고, 교류하는
지역 축제 현장

사랑을 행동으로 지역과 이웃을 품어온 우리 동네 복지관 40년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2025년 11월 7일, 개관 4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 200여 명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사랑을 행동으로, 우리 동네 복지관 40년'을 진행했습니다. 복지관의 40년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일상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돌보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복지관과 함께해 온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앞으로의 시간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알뜰바자회와 미니 플로깅, 다양한 놀거리·즐길 거리 부스를 통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참여의 장이 열렸고,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복지관과 교류하며 뜻깊은 40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장은지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한 알뜰바자회 현장

알뜰바자회

나눔을 잇는 건강한 소비

개관 40주년 기념행사 중 지역사회의 다양한 업체와 기업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알뜰바자회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후원받은 새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행사 수익금 전액은 취약계층 가정 지원에 사용되도록 기획했습니다.

바자회 현장에는 “필요한 것을 고르고, 마음을 나눈다”라는 따뜻한 공감이 오갔으며, 지역 안에서 건강한 소비와 나눔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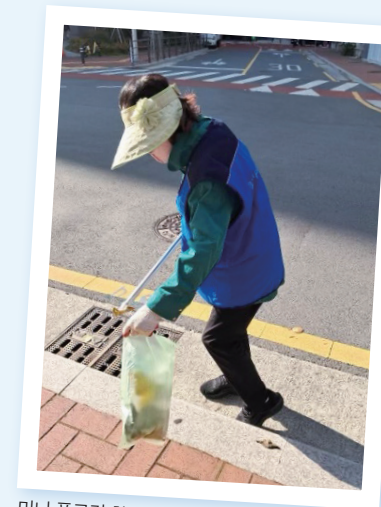
추억거리 부스의 인생 네컷 촬영 공간

미니 플로깅

함께 걷고, 함께 지키는 우리 동네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된 미니 플로깅 활동에는 총 4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복지관 인근을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역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변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는 동안 동네가 한층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주민들은 ‘우리 지역을 함께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미니 플로깅 활동 모습



먹거리 부스 운영 모습

추억거리 & 먹거리

사진으로 남기고, 맛으로 즐기는 부스

행사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추억거리와 먹거리 부스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추억거리 부스에서는 ‘인생네컷’ 포토부스를 마련해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팝콘, 솜사탕, 따뜻한 차를 무료로 제공해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의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담소를 나누는 이 공간은, 40주년 행사의 온기를 더하며 행사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체험활동이 진행된 즐길 거리 부스



즐길 거리 부스의 커피백 키링 제작 모습

즐길 거리

환경을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는 체험의 장

즐길 거리 부스에서는 지역조직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해피리더 EM 비누 만들기, 슬로라이프 환경 퀴즈, 핸드크림 나눔, 1+1 사랑방 손뜨개 팔찌 만들기, 업사이클링 커피백 키링 만들기 등 환경을 생각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손으로 만들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혔고, 완성된 물품을 손에 쥐며 작은 성취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체험 부스는 “유익하고 재미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활기찬 에너지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놀거리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한판

이번 행사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놀거리 부스가 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발 양궁, 인간 타이어, 제기차기 등 간단한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마련해 지역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놀이 결과에 따라 소정의 경품이 제공되며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주민들은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나누는 웃음은, 이날 행사의 가장 소중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개관 40주년 기념행사는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배우고, 교류하는 지역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채로운 부스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복지관과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놀거리 부스의 발 양궁 놀이 모습

달서구본리 종합사회복지관



2025 본리마을축제
788명의 웃음이 모인
세대 교류의 마당

세대공(共)감으로 하나 되는 마을,

본리이음페스티벌

초겨울의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본리어린이공원에 아이의 웃음과 어르신들의 박수가 어우러진 특별한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2025년 11월 1일, ‘세대공(共)감, 본리이음페스티벌’을 열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88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서로의 일상에 한 발짝 다가가며 공감과 이해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와 체험, 나눔과 공연이 어우러진 이날, 지역주민들은 ‘함께여서 더 즐거운 축제’, ‘이웃이 있어 더 따뜻한 마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글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 백성윤



다정다감 걷기 대회에서 에코백 만들기 체험활동

세대교류 놀이터

함께 배우고 함께 즐기는 체험의 장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세대교류 놀이터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한곳에 마련되었습니다. 고무신 날리기, 키오스크 체험, 3D 펜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 AI 오목 로봇 체험 등 다양한 놀이와 기술 체험이 준비되어 세대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화합이 이뤄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새롭고 신기한 체험을, 어른들은 옛 추억과 신기술을 함께 경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험부스 운영

다양한 10종 체험으로 즐거움 가득

현장 곳곳에는 총 10종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만들기, 놀이, 참여형 프로그램 등이 준비된 부스를 돌며 즐거움과 추억을 쌓았고, 가족 단위 참여가 두드러져 '함께하는 축제'라는 의미가 돋보였습니다. 체험 하나하나에 담긴 소중한 재미는 주민들에게 깊은 만족과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분리이음페스티벌의 다양한 놀이 체험



팝업 놀이터

보드게임 Zone, 누구나 즐기는 열린 놀이공간

팝업 놀이터 보드게임 Zone은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보드게임을 통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며 세대 간 거리감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참여 가능한 놀이공간은 축제의 참여도를 한층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분리후원회 바자회

나눔으로 이어가는 따뜻한 공동체

축제와 함께 복지관 분리후원회가 참여한 '제5회 복애복더하기바자회'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분리후원회 회원들이 기증한 생활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었으며, 바자회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후원회 활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물건 하나, 손길 하나에 담긴 마음은 지역사회를 잇는 소중한 힘이 되었습니다.



'제5회 복애복더하기바자회'를 진행한 분리후원회 회원들



다정다감 걷기대회 단체사진

다정다감 걷기대회

체험과 산책이 함께하는 건강 프로그램

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정다감 걷기대회'도 큰 호응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은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시간을 보내고, 공원 산책 코스에서 전통놀이 체험과 포토존 촬영 등을 즐기며 건강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체험과 여가, 건강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을 충전했습니다.

나눔돌봄 문화공연

국악부터 축하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

걷기대회 이후 펼쳐진 나눔돌봄 문화공연에서는 축제의 감동을 한층 깊게 만들었습니다.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 가수의 축하 무대, 신나는 라인댄스, 고고장구 공연까지 현장은 힘찬 박수와 응원으로 가득했습니다. 문화 향유의 장으로서 어르신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나눔돌봄 문화공연 관람



2025년 세대공(共)감, 분리이음페스티벌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교류하는 지역 축제로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복지관이 지향하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따뜻한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마을축제를 이어가며 본리의 오늘과 내일을 따뜻하게 잇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게르촌 아이들에게 희망을 밝힌 10년의 발걸음

2025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나란자야 만닥(전 몽골 홀트드림센터장) 인터뷰



매년 11월 25일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의2에 의해 지정된 '국제개발협력의 날'입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2009년 도움이 필요한 타국을 원조하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정식 회원국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그 성장의 발걸음을 따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여정이 마침내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5년 국제개발협력의 날, 몽골 홀트드림센터에서 헌신한 나란자야 만닥(Naranzaya Mandak) 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입니다.

글·사진 국제개발협력팀 이소민



2025년 국제개발협력의 날, 나란자야 만닥 씨의 국무총리 표창 수상 모습



인터뷰 중인 나란자야 만닥 씨

몽골 홀트드림센터와 함께한 10년,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나란자야 만닥 씨와 홀트의 인연은 2014년 시작되었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아이들과 손수 색종이 장식을 만들고, 서로의 꿈을 적어 트리에 걸던 순간이 그녀에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나란자야 만닥 씨가 트리에 적었던 꿈이 바로 '게르 지역에 몽골 홀트드림센터(이하 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칭겔테이구 게르 지역에 드디어 센터가 문을 연 것입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후원사인 한국증권금융의 지원,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편안하지 않았던 길,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센터에서는 아동 등록 절차에 앞서 반드시 가정방문을 진행합니다. 나란자야 씨는 초창기 멀리 떨어진 가정을 방문하며 몽골의 추운 골목을 누볐습니다. "게르촌 아이들은 제 때 식사를 못해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집은 거센 추위를 막기엔 너무 허술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지도 않는 좁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 학교에 가는 아이들, 작은 손으로 무거운

물을 길어 나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울란바토르가 발전해 가는 중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게르촌 지역. 그곳 아이들의 현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잠시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 상은 모두의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끝까지 믿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표창을 받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상의 의미를 자신의 성취가 아닌 공동의 성취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은 센터에서 함께 일해 온 직원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하루하루 변해 가는 아이들, 함께 희망을 품어 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먼 곳에서도 몽골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신 홀트아동복지회와 많은 후원자님들 모두에게 주어질 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야기

나란자야 씨가 걸은 지난 10년은 단순히 해외사업을 운영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확장하고 변화시킨 과정이었습니다. 센터 설립 초기부터 함께하며 센터가 자리 잡아 가는 모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게르촌의 아동 지원을 넘어 몽골 현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나란자야 씨는 홀트아동복지회의 몽골 사업을 지역 기반(Local NGO)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외부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도전은 나란자야 씨의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센터는 점차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고, 나란자야 씨는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아동 보호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기반 조직으로 전환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과 아이들을 지원해 온 과정, 이 모든 여정은 누군가의 삶을 돕는 일이 결국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홀트아동복지회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새로운 내일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희망 Dream 자립센터'가 여는 몽골 청소년의 미래

울란바토르시 칭겔테이구 '희망 Dream 자립센터' 개소, 청소년 취·창업 거점 역할 기대



지난 8월 21일 완공식과 함께 문을 연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겔테이구 희망 Dream 자립센터는 청소년과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및 사회적경제 거점으로, 현재 식품 생산과 비즈니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두·국수·밀가루·토르티야 등을 생산하며 게르촌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희망이 자라나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글·사진 국제개발협력팀 이소민



지역사회와 함께한 완공식, 자립을 응원하다

희망 Dream 자립센터 완공식은 지역사회와 한국·몽골 양국이 함께 청소년 자립을 응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완공식에는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과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김정각 이사장, 주몽골 한국대사관 관계자, 칭겔테이구 부구청장, 지역 청소년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울란바토르시의 대표적 빈곤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칭겔테이구. 그곳에 문을 연 희망 Dream 자립센터는 몽골 취약계층 청소년과 가정의 자립 기반을 넓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몽골 희망 Dream 자립센터 건물

지역사회 공헌에 담긴 감사와 인정

완공식에서는 그동안 몽골 아동과 가정을 위한 사업을 이어온 홀트아동복지회와 후원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현지 협력기관 몽골 홀트드림센터는 지역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칭겔테이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신미숙 회장은 구청에서 개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 유공 공로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경제활동

희망 Dream 자립센터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생산과 포장, 유통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만두뿐 아니라 국수, 밀가루 반죽, 토르티야까지 생산 품목을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상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몽골 희망 Dream 자립센터 내 만두공방 운영 모습



몽골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밀가루·국수류를 중심으로 제품을 구성함으로써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전 생애주기 통합지원

협력기관인 몽골 홀트드림센터는 2014년부터 영유아 데이케어, 방과후교실, 아동 권리·양육 교육, 정기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 Dream 자립센터 완공으로 아동·가족 지원에 청소년 직업훈련과 청소년 경제활동 지원이 더해지며 게르촌 취약계층 가정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가 한층 탄탄해졌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아동보호와 교육, 청소년 자립, 여성 고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겔테이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내일을 여는 자립 플랫폼으로

희망 Dream 자립센터는 앞으로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을 한 단계 확장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 자립지원 거점으로 발전해 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직업기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만두 공방과 식품 생산 활동을 기반으로 현지 식당·베이커리·식품 제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인턴십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몽골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축복이어야 할 순간이 생존의 시간이 되어버린 엄마들

혼자서 세상을 감당할 용기로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서는 엄마들을 응원해 주세요

MOM is WOW

한부모가족
지원 캠페인



채연 홍보대사와 함께 응원하는 한부모가족의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부모는 1,493,042명.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열 명의 부모 중 네 명은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해야만 하루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한부모는 곰팡이 핀 벽과 밀린 월세 속에서 오늘을 버텨야 하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맘이즈와우(MOM is WOW)' 캠페인 Season 2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홀트아동복지회의 홍보대사 채연님이 함께 참여해, 한부모가족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채연님의 동행은 많은 분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퇴원조차 못하고 돌아온 곳, 좁은 고시원

출산 후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갓난아이와 함께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으로 돌아온 주현 씨(가명). 기저귀 둘 자리도 없는 방, 복도에 퍼지는 아이 울음소리에 매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주현 씨는 아이에게 더 나은 내일을 전해 주기 위해 오늘을 살아야 했습니다.

새 옷 한 벌, 치킨 한 마리도 사줄 수 없었던 시간

당뇨 합병증과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어 가던 연희 씨(가명). 그녀에게 가장 큰 아픔은 자신의 병이 아니라 아이에게 외식 한 번, 깨끗한 새 옷 한 벌조차 사주지 못하

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헬스장 바닥을 닦는 고강도 아르바이트로 아이의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흐려져 가는 상황에서도 아이의 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맘이즈와우 캠페인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생계·돌봄·정서·주거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원의 폭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워 나가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단계 긴급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한부모에게 분유·기저귀 등 기본 양육 물품, 임시 주거비, 심리 상담을 즉시 지원해 가장 시급한 어려움을 먼저 돕습니다.

2단계 기술 교육 & 일자리 연계 맞춤형 교육과 플리마켓 참여를 통해 기술 습득 → 수익 창출 → 취업 연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합니다.

3단계 창업 준비 지원 베이킹·수공예·가족공예 등 창업을 꿈꾸는 한부모에게 전문 교육과 제작·판매 경험을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한부모 엄마들의 용기와 사랑을 담은 'WOW 캥거루 키링'을 감사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엄마의 품을 상징하는 예쁜 캥거루 키링처럼 한부모가족의 내일을 지키는 맘이즈와우 캠페인에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글 나눔기획팀 이예림

홀로 아이를 지키는 엄마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내도록
놀라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한부모가족 후원하기



작은 시작이 만든 큰 변화, '츠카타니코리아'의 따뜻한 후원 이야기

츠카타니코리아 이선란 관리부장 인터뷰

공영특수금형 제조·판매사인 츠카타니코리아는 2024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고 정기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까지 더해지며, 나눔은 '회사 문화'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조심스러운 제안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어떻게 조직 전체의 따뜻한 연대로 확산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글 나눔기획팀 김지수

Q 홀트아동복지회에 관심을 갖고 회사에 기부 참여를 제안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평범하지만 큰 행운임을 느꼈고, 이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홀트 홍보대사인 선 님의 따뜻한 나눔활동도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개인 기부를 지속하며 나눔이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에 제안했는데, 대표님께서 흔쾌히 공감해 주셨고 동료들도 동참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조직 전체가 함께하는 훈훈한 기부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츠카타니코리아 임직원 단체사진



Q 동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작은 실천이 계기가 되어 각자의 삶에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선행의 마일리지'가 쌓이기를 바라요. 언젠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이곳에서 시작된 기부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라나 지속적인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Q 앞으로 회사나 개인 차원에서 기대하는 점이 어떤가요?

회사가 더욱 성장해 더 많은 구성원이 나눔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의 작은 도움이 전해진 아동과 그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든 희망

츠카타니코리아 임직원들의 정기후원은 위기가정아동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중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여는 기업 안에서 나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고, 아동과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기업과 협력해 아동과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새음학교 '막무가내 대장부'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나눔의 여정

9년째 이어온 새음학교 지리산 나눔 종주 이야기

기독교 대안학교인 '새음학교'의 7학년 학생들은 매년 '막무가내 대장부'라는 이름으로 지리산 나눔 종주에 도전합니다. 새음학교는 2017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어 왔고, 학생들이 걸은 거리 100m당 100원이 적립되는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오르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한 걸음씩 실천해 온 '막무가내 대장부'의 특별한 나눔 여정을 들려드립니다.

글 나눔기획팀 최주영

새음학교
이해리 교장선생님



Q 지리산 나눔 종주의 기획 의도와 꾸준한 후원이 가능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새음학교 지리산 종주는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등 과정을 마치고 중등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아이들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고난학습으로 기획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우리가 걷는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난에 머무르지 말고, 이 과정을 나눔과 연결해보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추구하는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가치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철학이 새음학교의 방향과 맞닿아 있어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조병국 전 홀트부속의원 원장님의 따뜻한 정성도 이 관계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종주 전 조 원장님의 책을 읽고 손 편지를 보내면 일일이 직접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진심이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Q 새음학교가 아이들에게 어떤 학교가 되길 원하시나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행복,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행복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교육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막무가내 대장부 19기
채하울



Q 이번 지리산 종주를 '나눔'이라고 표현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번 종주가 제 '한계'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듦을 같이 나누며 버텼기 때문이에요.

Q 종주를 마친 뒤,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 우석이 오빠를 포함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어요.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함께해 준 친구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제 한계를 넘어 끝까지 해냈다는 점이 스스로도 대견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동행

홀트아동복지회는 새음학교 '막무가내 대장부'의 지리산 나눔 종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주신 새음학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립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 HD현대1%나눔재단 GRC 플라마켓

2025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HD현대 글로벌 R&D센터(GRC)에서는 한 해의 끝자락을 따뜻한 마음으로 채우는 특별한 플라마켓이 열렸습니다. 'HD현대1%나눔재단 GRC 플라마켓'은 나눔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플라마켓 현장은 응원과 나눔이 어우러지며,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큰 희망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오간 그날의 현장을 전합니다.

글 나눔기획팀 이예진

HD현대1%나눔재단은 2023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협력해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단단한부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들은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이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취창업과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플라마켓에는 '단단한부모'에 참여했던 한부모 셀러 15팀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과 경험을 살려 직접 만든 수공예품, 생활소품, 디저트 등을 선보였으며, HD현대 임직원과 가족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부스를 찾아 제품을 구매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부모 자립을 응원하는 온기로 가득했던 GRC 플라마켓 현장

"작은 시작이 큰 힘이 되었어요"



GRC 플라마켓을 참여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 참여하는 플라마켓이라 긴장도 됐지만, 판매자분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이번 행사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위기 속에서 제 브랜드를 소개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플라마켓이 드문 겨울철에 이렇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저의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주신 HD현대1%나눔재단과 홀트아동복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단한부모'와 GRC 플라마켓을 참여하며 생긴 변화가 있다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 제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원금 덕분에 다양한 샘플을 시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고객분들께 직접 제품을 소개하며 제 브랜드에 대한 애착도 커졌습니다. 판매 수익뿐 아니라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도전 의지가 생겼고, 앞으로 더 발전된 작품으로 찾아뵙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행사를 가득 채운 웃음과 진심 어린 응원의 말들 속에서, 이번 플라마켓은 '배움과 나눔이 연결된 성장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HD현대1%나눔재단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자립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더하는 플라마켓"



HD현대1%나눔재단이 지원하는 '단단한부모'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부모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정서적 회복까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한부모들을 지원하는 재단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이번 플라마켓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더하는 플라마켓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한부모 셀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짧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요?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그 여정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부모 셀러들에게 의미 있는 판로가 되기를"



올해 플라마켓이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나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다면요?

연말 분위기를 행사장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사내 디자인팀이 직접 행사장 디자인에 참여해 더욱 풍성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플라마켓 혹은 후속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변화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인 만큼, 임직원들은 GRC 플라마켓에 참여한 한부모 셀러들의 브랜드를 기억하며 꾸준히 찾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가 한부모 셀러들이 준비한 좋은 물건을 HD현대 임직원들에게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한부모 셀러분들에게 이번 행사가 어떤 도움이 되길 바라셨나요?

GRC 플라마켓이 한부모 셀러들에게 의미 있는 판로가 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접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성욱·이화진 부부의 결혼기념일 특별한 후원 이야기

소중한 기념일을 나누는 작은 마음이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2025년 5월 11일, 한 부부의 소중한 기념일이 누군가의 희망으로 이어진 따뜻한 나눔이 홀트아동복지회에 도착했습니다. 조성욱·이화진 부부 후원자님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511만 원의 특별한 후원을 전하며 축하의 순간을 따뜻한 나눔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번 후원에는 “결혼기념일을 우리만의 추억과 기쁨으로 남기기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날로 만들고 싶다”라는 두 분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 나눔지원팀 권소현



일상 속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 특별한 선택

조성욱 후원자는 의료 부동산 플랫폼 ‘오픈닥터’에서 고객 경험 총괄 이사로 활동하며, IT·디자인·스타트업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인 이화진 님은 아모레퍼시픽과 샤넬 등 글로벌 기업에서 10년간 마케팅을 담당했고, 현재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두 분은 평소에도 일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눠 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나눔이 시작됩니다

이번 후원은 거창한 계획이나 오랜 고민 끝에 이뤄진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 충분했다는 두 분의 말처럼 나눔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성욱 후원자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후원은 대단한 결단이라기보다 각자의 삶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라는 말처럼 이번 결혼기념일 후원 역시 그런 순간의 선택이었고, 그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조성욱 후원자는 후원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눔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다가오더라”라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니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이웃의 희망으로 나눠주시는 조성욱·이화진 부부의 따뜻한 선택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특별한 날을 너에게 선물할게

특별한 후원은 생일, 자녀의 첫돌, 결혼기념일처럼 소중한 순간을 나눔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기념일 후원 캠페인입니다. “오늘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희망과 나눔으로 전하고 싶다”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줄

아하는 아티스트의 생일이나 데뷔일을 기념하는 팬덤 후원으로까지 이어지며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후원으로 모인 후원금은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장애인, 지역주민, 해외 취약아동 등 홀트아동복지회의 주요 사업 전반에 걸쳐 가장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후원자가 기념하고자 했던 순간의 마음이 닿는 곳에 변화와 위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곳에 의미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특별한 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며 나눔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힘으로 나눔의 가치를 만든다

홀트의 든든한 동행자 탐리더스 강성만 위원이 전하는 나눔의 기쁨과 보람

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 탐리더스 강성만 위원(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이사·㈜이케이엠 회장)은 지난 2월 6일, 장애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또한 미디어 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이케이엠과의 사회공헌 협력 MOU 체결, 전국장애인미술공모전 시상식 굿즈 제작 후원에도 참여하며 장애인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성만 위원이 실천해 온 나눔 이야기를 전합니다.

글·사진 임팩트기금팀장 권혜란

지역사회와 함께 걷는 든든한 동행

“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성만 위원은 홀트아동복지회 산하시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운영위원 활동을 통해 장애인 재활스포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체적 회복은 물론, 정서적·사회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재활스포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어 “아동과 가족의 인생 여정에 함께하는 홀트의 활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그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강성만 위원 탐리더스 위촉식



제 3회 전국장애인 미술공모전 시상식에서 (주)이케이엠 직원들과 함께

나눔은 선택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나눔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강성만 위원의 부모님은 2남 2녀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바쁜 일상 중에도 식사를 거른 이웃에게 따뜻한 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매년 고무신 100켤레를 기부하며 나눔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나눔이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강성만 위원은 “제 나눔의 원동력은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청년을 키우고 장애인 예술가를 응원하다

강성만 위원은 나눔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인 네트워킹을 통한 청년 나눔 모임 ‘청솔모(청년들의 솔직한 모임)’를 창단했습니다. 20~3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초복 당일 아침에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고양시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삼계탕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강성만 위원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 예술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예술을 경험하고, 역량 있는 장애인 작가들이 사회 안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강 위원의 행보에는 소외된 이웃의 자립과 그들의 가능성을 키워 주는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홀트와 동행을 기대하고 약속하며

“홀트아동복지회 직원분들의 헌신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특별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복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액후원자로서 이 여정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강성만 위원은 나눔에 늘 앞장서서 이웃과 함께 행복해질 길 기대하는 ‘해결사’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홀트의 든든한 가족입니다. 홀트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이끄는 멋진 기부활동이 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나눔을 일상으로

탐리더스 공인노무사 김기범 위원이 전하는 사회적 사명과 연대 이야기



런런 챌린지 5기 최종평가회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노동법 실전 가이드' 강의 장면



강의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사랑은 마음에 머무를 때보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사회 위기 속에 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 곁에서 묵묵히 손을 내밀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를 실천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이자 노동법 1타 강사로 20년 가까이 후배 노무사 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기범 위원. 자신의 전문성과 삶의 경험을 나눔으로 연결하며,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홀트의 가치에 동참하는 김기범 위원을 만났습니다.

글·사진 임팩트기금팀장 권혜란

한부모가족 후원,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연대

김기범 위원과 홀트아동복지회의 인연은 2021년 한부모가족 후원금 1,500만 원을 전달해 고액후원자 모임 탐리더스로 위촉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김기범 위원은 “후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각자가 스스로 땀 흘려 번 소득의 일부를 사회에 나누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장 따뜻한 실천이라는 생각에 후원을 시작했다”라며 우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기부의 잠재력, 그 가치에 대해 말합니다.

노무사의 삶과 나눔은 '정의로운' 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불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20년 이상 노무사로 활동해 온 김기범 위원은 초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에 힘썼고, 현재는 노동법 강의를 통해 후배 노무사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 양성을 위한 강의는 기부와 같다고 말합니다. 후원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여기며 언제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노무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사관계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감내하는 일, 김 위원에게 전문성은 곧 사회적 사명을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물질적 후원이든 재능 기부든 나눔의 방식은 다르지만, 사회적 약자를 향한 마음은 늘 같다고 전합니다.

사회 초년생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특강

지난 12월 13일 진행된 런런 챌린지(Run Learn Challenge) 최종평가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실무 특강이 마련되었습니다. 재직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현장에서 겪기 쉬운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역량을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강의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립에 꼭 필요한 강의였고, 후원자님(자) 공인노무사님을 직접 만나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교육 중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법률 강의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노동법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적응이 쉽지 않고 노무 관련 상담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는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특강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홀트의 70년 역사와 사명을 이어온 임직원들의 진심을 믿습니다

“후원자로서 제 후원금이 실제 사업 현장에 전달되고, 그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상세한 결과 보고로 확인하며 홀트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홀트 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은 서로 다르지만, 앞으로도 홀트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희망의 손을 내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김기범 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기범 의원의 한부모가족 후원금 전달식





본부

송영중 목사, 대구경북교회협력위원장 위촉

10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경북노회 노회장이자 복원교회 담임목사인 송영중 목사를 대구경북교회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기독교적 설립이념인 '사랑을 행동으로'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영중 위원장의 사역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의 아동 지원 및 가족복지 사업이 널리 퍼져가길 기대합니다.



본부

동양생명,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 지원금 전달식

11월 3일, 동양생명과 함께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동양생명은 이번 사업을 위해 총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미래설계지원, 문화지원,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저축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향후 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본부

영웅시대 나눔의 방, 학대피해아동 위한 'Hero Kit' 진행

12월 12일,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 방' 탐리더스 위원들이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을 위한 'Hero Kit' 연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임영웅 2집 발매를 기념해 829만 원의 후원금을 전한 회원들은 이번 활동에서 아동들에게 격려 편지를 직접 작성하고, 생필품 꾸러미 'Hero Kit' 40세트를 정성껏 포장하며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을 응원했습니다.



본부

이진·장아인 부부, 특별한 후원과 탐리더스 위촉

12월 13일, 이진(엘박스 대표)·장아인(아인요가 대표) 부부의 고액후원자 탐리더스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진·장아인 후원자 부부는 11월 24일 결혼기념일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위해 5,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하며 뜻깊은 순간을 나눔으로 기념하는 '특별한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 위기가정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부

IBK기업은행, '아이봄 출산·양육 지원금' 업무협약 체결

11월 5일, IBK기업은행과 '아이봄 출산·양육 지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IBK기업은행은 2014년부터 미혼한부모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하며 영유아·청소년·청년 금융바우처 사업까지 협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아동과 가정에 큰 힘이 되어 주신 IBK기업은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부

댄저러스, '선행으로 함께하는 생일' 특별 후원

12월 10일, 가수 채연 홍보대사의 공식 팬클럽 '댄저러스' 회원들이 스타의 생일을 기념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한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2003년 창단된 '댄저러스'는 2025년 채연의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선행으로 함께하는 생일'을 기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부

선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산타 기부란' 진행

12월 25일, 선 홍보대사와 함께 위기가정아동 수진·민재 판매를 응원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산타 기부란'을 진행했습니다. 선 홍보대사의 자녀 하랑·하울을 비롯, 전 마라톤 국가대표 권은주, 배우 이세영, 마라톤 국가대표 임경희, 육상선수 장호준, 러닝코치 이연진, 유튜버 심오뜸 등이 참가했으며 하랑·하울 이름의 기부금 100만 원을 포함, 총 4,120,250원의 후원금 전액은 수진이네를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지부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지원 서명 캠페인' 진행

11월 6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전국 지부 연합으로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지원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인 지적 취약계층이지만 법적 지원 대상인 지적장애에는 포함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의 권의 보호와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청지부

건보공단 미혼한부모 지원 후원금 전달

11월 13일,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위기 미혼한부모 통합지원을 위해 후원금 3,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미혼한부모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함께 건강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미혼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국악예술단 '손울림' 제1회 정기공연 개최

11월 13일, EBS 1층 공감 스페이스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국악예술단 '손울림'의 제1회 정기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복지관이 운영 중인 성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르떼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된 첫 공식 무대로, 20~30대 성인 발달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25현 가야금, 대금, 소금, 해금 등 다양한 국악기로 다채로운 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대구클로버

가족친화 프로그램 '물빛 속 웃음을 담다' 진행

11월 7~8일, 입소자 가족들은 깊어 가는 가을을 맞아 학업과 양육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나 심과 재충전을 위해 부산으로 가을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아쿠아리움 관람 등 즐거운 체험을 통해 활기찬 시간을 보냈고, 엄마들은 바다와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내려놓는 힐링의 순간을 누렸습니다. 이번 캠핑은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전클로버

입소자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12월 12일과 15일, 입소자를 대상으로 제과제빵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전클로버는 한부모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의 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과제빵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고민하는 한부모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장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실제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뜰

크리스마스 테이블 센터피스 만들기 진행

12월 3일, 한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효능감 향상, 자존스러운 소통을 통한 친밀감 향상을 위해 입소자와 종사자가 함께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플라워숍 '꽃길' 신혜은 대표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편백, 더글러스 등을 이용해 테이블 센터피스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소자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렘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뜰

아름뜰 가족사진 'For MOM' 진행

12월 6일과 11일, 아름뜰 인근 흥대에 위치한 '공간느루' 스튜디오의 지원으로 가족사진 촬영 'For MOM'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뜰 가족들은 스튜디오를 방문해 아이와 함께 또는 엄마 단독으로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를 통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멋진 엄마들을 격려하고 아이와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느루는 이번 촬영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주클로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의 자립 촉진 세미나 개최

11월 28~29일, 광주클로버 주최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의 자립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회의 5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2명이 참여해 각 기관의 우수 프로그램과 사례를 공유하고, 생활인의 자립·양육·정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생활인의 현황과 지원 방안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대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 유대강화 프로그램 '함께, 가을을 걷다' 진행

11월 22일, 대전 오월드에서 지역사회 한부모가족 유대강화 프로그램 '함께, 가을을 걷다'를 진행했습니다. 참여 가족들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따뜻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해외후원 해외 취약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4개국 4개 해외사업장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결연후원 향기 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국내·외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기회를 지원합니다.
- 
고액후원 다양한 기부활동과 봉사료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가 되어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합니다.
- 
기업후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협력사업(수익 기부, 지원사업 공동기획, 임직원·고객 참여 캠페인, 공익연계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합니다.
- 
교회후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갑니다.
- 
특별한 후원 생일, 첫돌, 결혼, 취업, 출산, 팬덤 등 특별하고 소중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념일 캠페인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후원합니다.

위기가정지원 캠페인

“치료법이 없는 희귀병,
지율이의 하루가
멈추고 있습니다.”



나는 [경계선지능 한부모]입니다

※ IQ 70~84 범위에 해당하는 인지적 취약계층

느린학습자 한부모가족 아이를 구하는 서명하기

서명해 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위험 속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세이프 휘슬 키링'을 드립니다.



“ 믿는 구석이 있으면” 힘든 줄도 몰라

밤낮으로 돌아가는 기계소리에
키가 딱딱해져도

두꺼운 쇠붙이를 두드리다 보면
어쩐지 힘이 막 솟는다니까?

이걸로 내 새끼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다 보낼 수 있다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지
그렇게 내 인생도 더 단단해졌거든

그 인생,
앞으로도 흔들림 없도록

우리금융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맨앞에 두고 응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기업을. 맨앞에.